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권지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법공양 페이지

모두 내 몸 아님 없으니 나누지 말라

15면에서 계속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묘하니 여러분이 단 한마음에... 한마음도 체가 없는 겁니다. 한마음에서 검부라지 하나를 일으켜 세운다 하더라도 지구를 들 수 있는 그런 태세라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관계상 여러분에게 간곡히 이날까지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점점 그것이... 내가 이름들, 지금 지어 놓은 이름도 무식해서 모르고 내가 지으려니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운 기(氣)가 압축되면 공기막이 터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면 아니 되니까 그것을 높이 하면은 열음이 녹지 않고... 또 지금 오염이 된다는 사실, 이 중생들이 오염이 되게 하면은 가차없이 모두가 살림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것을 버려서 오염이 되나 했더니, 이번엔 알프스 산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땅을 파고 쇠덩어리를 박고 한 이런 것부터 벌써 오염이네요. 이 모두가 오염이네요.

자기 무시하지 말도록

그건 왜 오염이 되느냐. 의사가 완전히 배워 가지고 수술을 할 때에 그 세포를 건드리지 않고 살의 각을 듣니다. 그런데 이걸 그릇도 모르고 세포고, 동맥이고 뭐고 막 끊고 쇠를 박으니 이게 오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의사가 아니면서 의사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생기는 그 오염을 막는다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끊어진 세포를 잇고... 하여튼 마음은 체가 없는 겁니다. 체가 없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그 오염을 전체 깨끗하게 막아 준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가만히 보니까 남극이고 북극이고, 만년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북극에서 남극으로 통로가 돼 있다면은 남극 바로 옆에, 아래 옆에 또 통로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은 그 분비물이 다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비었죠. 지구가 비었다고 볼 수 있죠. 사람도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그렇게 해서 소통이 되듯이,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는 비었는지 차있는지 그걸 모르겠지만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보면 그것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달도 비고, 해도 양극이 크게 구멍이 나서 연결이 되니까 양쪽으로 돌고 내고 하는 그 소통이 아주 정연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광창되지도 않고 너무 타 버리지도 않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이렇게 소통이 잘되고 이러한 것도, 수명이 길게 되고 짧게 되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우리 마음이 은하계에 결부돼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옛날에 이런 얘길 했던 '저 스님 왜 재래' 이럴까 봐... 십년 전에도 내가 한마디 웃으면서 한 얘기가 있죠. "야, 지구도 비었어. 달도 비었어. 모두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차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야"라고요. 화성에도 사람이 살다가... 생명이 없으면 공기가 없어지게 돼 있거든요. 대기권이 없어지고요. 그것은 모두가 오염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체가 좀 살아나고 있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생명이 자라게 하려면 자라게 하고 또 생명이 없어지게 하려면 없어지게 하고, 물이 생기게 하려면 생기게 하고 그럴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유권을 가졌습니다. 자기를 무시하지 마세요. 자기를 무시하는 것은 부처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나도 모르면서 그냥 죽을 수는

없죠. 죽는 게 아까워서 아닙니다. 새로 살림을 하자면 너무나 처참한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항상 돌이 아니라고 하죠? 내 부모, 내 부모가 따로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고 하면서 형성돼 올라왔고 진화돼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 이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이름은 벌써 우주에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짓말 같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데 글자 쓰는 것만 글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이상하다고 하시겠습니까? 글씨요. 이상하다고 하는 소리 난 뭐 백 번도 더 들었으니깐요.

하여튼 이렇게 외국으로 돌면서도 간곡히, 삼백 몇십 년 전만이 아니라 불에 타 죽고 하던 시대에 있었던 영가들도 그렇게 좋아서, 물에서나 어디서나 다 좋아서... 플레이인가 하는 거기도 세 지역이 물로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그렇게 우리 스님들이 한 바퀴 도는데 전부 선처를 빌려옵니다. 그래서 다 해 주고 왔다고 합니다. 우리 스님에게도 직접 그렇게 부탁을 해서, 어떤 때는 한참도 못 자고 그 이틀 날 아침까지 해 주고 끝내고 왔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랬죠. "그렇게 밤까지 쉴 게 뭐 있나? 마음인데, 허허허... 이 종지의 물도 (법상 위의 갑을 가리키시며) 바다로, 바닷물로 만들 수 있다. 마음이 기 때문에. 마음이 한계가 없다. 그리고 과일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갖다 놔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한 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 하는지를 알고나 가야죠.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동시에 내 집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그 차원이 정말 높아져서 세세생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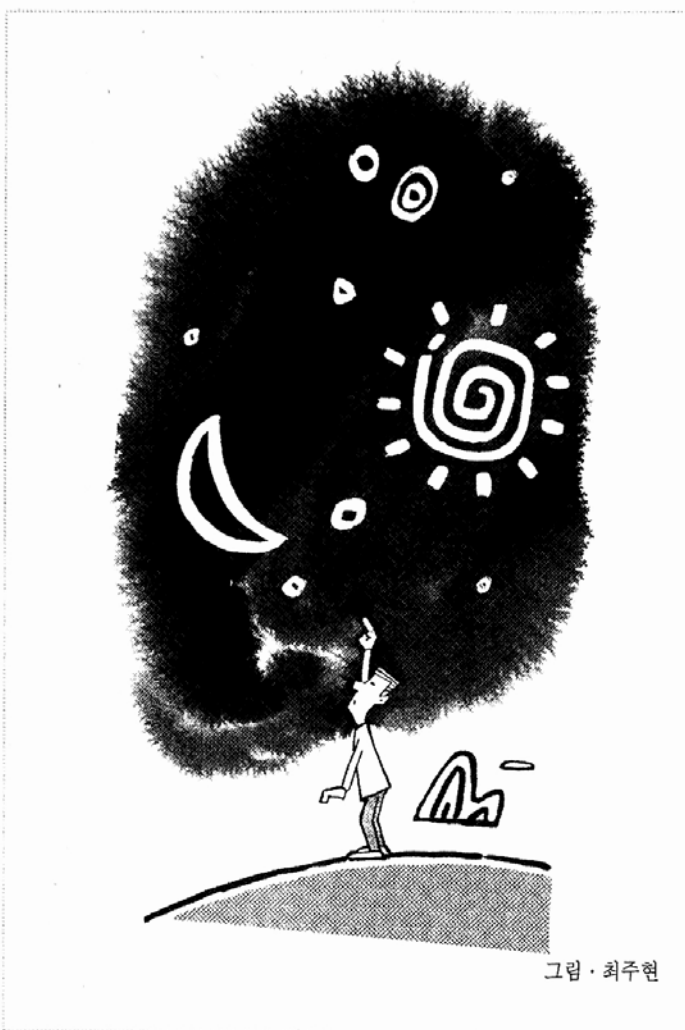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가, 누런 배가 다섯 개가 열려있다면 그것은, 생각만 해보세요. 그 배가 무얼 먹고 사나, 무슨 생명을 뜯어먹고 삼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깨끗하게 올라가서 우주를 삼킬 수 있는 큰 배들이 열렸을 때,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했을 때 어떠한가.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그 나무들이라고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나무로서 화(化)해서 등장을 하신다면 이 우주를 한 손가락만한 아니라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고) 한 검부라지로 들어도 아마 잘 보존해서 돌릴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그렇게 일을 하면 우리가 무(無)의 수행자일 뿐만 아니라 무의 과학자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나 유(有)의 과학자는 그렇게 들 수가 없죠. 볼 수는 있었지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물컵이 이렇게 쓰러지는 것을 보고선 저 물컵이 다 쓰러졌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물컵을 들어서 옮겨 놓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소소한 일이라도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보이는 데로 나오는 것이고, 또 보이는 데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모두 무(無)에 또 입력이 된다고 제가 말씀했죠.

그러니 우리가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잠이 드나 일을 하나, 모든 것을 그놈이 한다고 생각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바로 그 까닭입니다. 여러분이 좋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건질 수 있고, 하나하나 오는 사람만 건지는 게 아니라 모두를 다 건질 수 있고, 진화시키고 창조해서... 그것도 누가 했다 누가 했다 이런 말 없이 그냥 묵묵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은 체없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죠

지구·달·태양 수명도 마음에 달려있어

그 사실도 또 덧붙여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스님이 이렇게 물어오, "스님은 왜 우주뎌 하나를 해 놓고 그렇게 천도를 하십니까?" 이러구려 "야, 평생에 살면서 한평생만 아니라 수없이 그 역습을 내려오면서 먹고 받고 파고 그냥 입고 싸우고 죽고 이러면서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을 면제해 주려면 우주에다 집어넣어서 너 마음대로 먹고 너 마음대로 해라고 한다면 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空)한 줄 알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너지만 총괄할 줄 알면 그뿐이지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 거와 같이 우리들이 이렇게 그냥 부처님 한 분 모셔 놓는 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눈물나는 뼈저린 아픔으로 부처님 한 분 한 분 모셔 놓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는 얘깁니다. 부처님 한 분이 여러분의 몸도 될 수 있고 내 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정신계로 들어가라고 하니, 공에 빠져 물질계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물질계와 정신계가 틀어지니 이런 여러분 자체일 겁니다. 아, 여러분 정신이 빠져도 육신은 송장이 되니

무효고, 또 정신계만 있으면 보이지 않아서 무효고, 그러면 어떻게 용을까요? 정상체로 만들려면 정신계와 물질계가 혼합이 돼서 정상으로 사해서 정상적이 됩니까? 그런데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정신계와 물질계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부처의 몸과 우리의 몸이 따로 있는 걸로 아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부처와 중생 같이 있어

'부처님의 몸도 네 몸과 같이 생각하라. 부처님의 마음도 네 마음같이 생각하라. 또 부처님의 법도 너의 생활의 법과 같이 생각하라. 아래로 내려가서는 네 아픔이 전체의 아픔인 줄 알고 살라. 모두가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으니 나누지 말라.' 이렇게 모두 말씀해 놓으셨지만 내가 무식한 게 여러분한테 대행이네요. 왜 물어보셨습니까? 내가 유식했으면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직선적으로 그냥 무식한 대로 그냥 이렇게 내질러서 말을 하지 않고 아주 지식적이고 학술적으로 잘 만들어서 착 내놓죠. 하하하... 그런데 나는 워낙 촌에서 호미자루만 들고 발

매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저 무뎠방 내가 아는 대로 그냥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상당히 쉽다 말입니다. 알아듣기가, 안 그렇습니까?

대중: 감사합니다.
스님: 그러니까 이익이죠. 허허허... (대중 박수)

지금 이 우주에 관한 것도 말할 문제가 너무도 많아서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서만이 아니라 말을 해서 그 마음을 먹고 있으면 또 마(魔)가 틀까 열려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귀신이든 사람이든 어떤 영가든 풀 아니게 다루는 법이죠. 이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열리는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정말 성한 사람인가.' 이럴까 봐 난 더이상 그 말을 못합니다. 나중에 또 모르죠. 여러분이 그것을 집어넣고도 소화가 될 수 있다면 모르죠. 그러니 그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니 하면 안되리만큼 돼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에 관한 건도 천차만별 차원의 종자가 얼마만큼 커서 아주 그냥 깔고 깔아 여기 하나도 볼지 않는, 하늘을 닿게 할 수 있는 배나무

그런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상을 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아예 우주상을 받아요. 여러분 질문하세요.

사회자: 오늘은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님: 질문이 왜 없습니까? 사람이 있는데. (대중 웃음) 아,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합니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질문이 진짜지 못났든 잘났든, 잘하든 못하든,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질문이 진짜가 아니라면은 대답도 아바 진짜가 아닐지도 모르죠. 하하하... (대중 웃음).

참 살면서,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오지만 얼마나 아프 때도 많고, 슬플 때도 많고, 허탈할 때도 많고, 짜증날 때도 많고, 화가 날 때도 많고 살기 싫은 때도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누가 살라 말아라 할 게 없이 살아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살아야죠. 하하하...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래요. 왜 당신은 그렇게 미친 소리만 하느냐구요. (대중 웃음) 하하하... 그런데 미친 짓은 나 혼

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일체가 다 미친 짓을 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모두가 급하니까요. 점차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급하게요. 그러니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삼킴이 웃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한 말이 내 말입니다. (대중 박수)

아유, 저 캐나다에 갔더니요. 비디오 찍는 사람, 뭐라 그러죠? 그거. (대중 속에서 '프로덕션'이라고 말을 함) 하하하... 이렇게 무식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익이네요. 하하하... (대중 웃음) 아이, 아주 그냥 쫓아다니면서, 저수지에 가도 쫓아오고 뭐 어딜 가도 쫓아오는데 하여튼 그렇게 착하고 한편으로 조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자상하다고나 할까요? 쫓아다니는 게, 하하하... 그런 걸 당하고 내가 먼저 왔습니다. 안 왔죠. 아직? 오늘 올 거예요. 아, 아.

그렇게 하면서... 거기 참, 그 얘길 안 해 드렸구나. 독일에서도 한 이백 명이 왔구요, 그 대사나 공사, 이런 분들도 그렇고. 거기서 불교라는 이름도 모르고 불교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스님네들끼리 나가면은 구경들을 해오면 아니라 무의 과학자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나 유(有)의 과학자는 그렇게 들 수가 없죠. 볼 수는 있었지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물컵이 이렇게 쓰러지는 것을 보고선 저 물컵이 다 쓰러졌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물컵을 들어서 옮겨 놓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소소한 일이라도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보이는 데로 나오는 것이고, 또 보이는 데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모두 무(無)에 또 입력이 된다고 제가 말씀했죠.

소소한 것 다 버리도록

또 캐나다에 가니까요 한인회관이라나, 내 이렇게 무식하니까요. 이렇게 무식해요. 거짓을 안 하기 때문에 좀 낫죠. 살기가. 그래, 한인회관을 샀는데 무척 넓어요. 법당도 무척 넓고 부처님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청정하고 그렇게 좋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주차장이요, 아마 빌딩 하나 세울 정도로 넓어요. 그래서 좋구요. 거기다 천막을 치구요. 그랬는데 그냥 한 천막 명 정도 왔어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이 특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날더러 물기름요, 그 어느 종교의 필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머리를 칭칭 돌려 맨 외국 사람인데요, 이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네 놈이 했다 그랬죠. (대중 웃음) 네 놈이. 불이라는 놈하고, 물이라는 놈하고, 흙이란 놈하고, 바람이란 놈하고 그렇게 넷이서 창조를 했대구요. 그 내가 무식하잖아 그 사람도 알아들었지 만안에 내가 유식했더라면 그 사람 못 알아들어요. (대중 웃음) 하하하... 아, 정말이네요. 그게 맞아요. 이 부처님 법을 잘 아는 분들이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무식하게 그냥 물었다 이라고, 하하. 얘길 하니가 아주 잘 알아 듣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손을 반짝 들고 좋아서 그냥 그러더군요. (대중 웃음)

그러니 때로는 무식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도둑질을 해도 크게 못하고 조그맣게 하고 그러는데 이걸 도둑질이 아닌 도둑질을 하려면 여러분도 나를 따라서 다 도둑놈이 돼 가지고, 이 세상을 다 훔쳐 손가락 안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소소한 거는 다 버리세요. 다 버려서 그 안에 놓으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 딱 데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버려도 그 자리에 있는 거지. 허허허... 그러니까 우리 외국에 갔던 얘기 다 해 버리면 요다음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걸로써 끝냅니다.

*위 법문은 1996년 11월 3일 법체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짜로 인위를 남용 고갈된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수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S5년 288쪽
값 6,000원
어서아주